

I. 오락실

1. 일반사항

- 소재지: 안산시
- 사고일시: 2007. 12. 26. 17시 18분
- 발화장소: 지상5층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중 3층 오락실 입구
- 재산피해: 30,700천원
- 인명피해: 7명(사망 5명, 부상 2명)
- 발화원인: 부주의(용접불티로 인한 실화)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설명 및 출처

사진 1. 오락실 출입문 앞 복도(사진 중앙에 보이는 옥내소화전을 화재진압에 이용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872907>

사진 2. 오락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바라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211571>

사진 3. 오락실 출입문(외부 복도 방향에서 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0211572>

2. 화재상황 및 발화원인

지상5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슬라브 지붕)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오락실 철문 잠금장치 용접을 하던 중 용접공의 실수로 불티가 벽면과 천장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되었다. 불이나자 용접공은 혼자 10여분간 불을 끄려다 여의치 않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고 건물의 화재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4, 5층 모텔 손님들도 건물에 연기가 차오를 때까지 불이 난 사실을 몰랐다.

3층의 오락실은 100여 ㎡의 공간에 성인 오락기 40여대가 다닥다닥 놓여 있었고 내부에는 비상구는

물론 창문도 없었다. 게다가 이중으로 만들어진 출입구의 안쪽 문은 불투명 유리로 만들어져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한동안 불이 난 줄도 몰랐다. 오락실에서 불법게임을 하던 손님들도 하나뿐인 출입문이 불길에 휩싸인 후에야 화재사실을 알고 대피하려 했지만 출입구는 막혀있었고 유독가스는 차올라 오락실에 있던 7명(사망5명, 부상2명)이 변을 당하였다.

불법오락실이다 보니 방염처리하는 물론, 기본적인 소방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락실 벽면에는 섬유로 만든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그 안은 스티로폼 내장재로 차 있어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사진 4. 오락실 입구 유리문 앞에서 용접을 통하여 철문에 추가 설치하려던 빔장결이 및 용접기



사진 5. 오락실 내부 유리문(틀만 남음)과 복도 쪽 추가로 설치한 철문

사진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벽면과 철문이 열에 의하여 변색되었고, 철문에서는 열에 의한 변형과 백화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리문과 철문 사이 공간에서 발화하여 오락실 내부로 확대된 것을 보여주는 벽면의 연소 패턴도 확인되었다.



사진 6. 3층의 모든 창문을 내부에서 합판으로 막음

3. 피해상황

5층 모텔 투숙객 등 50여명은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오락실 손님 4명과 오락실 업주 등 5명이 유일한 피난경로인 출입문 앞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난하지 못하고 오락실 내부에서 연기에 질식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이 업소 종업원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